

“힘을 주세요”

아드보, 토고전 앞두고 선전 기원

“남은기간 동안 컨디션 100% 회복”

“하루 하루 카운트 다운이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월드컵이 시작된 걸 뚝으로 느끼고 있다”

“아드보카트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7일(이하 한국시간) 독일 땅을 밟은 뒤, 처음 훈련을 지휘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독일 쾰른 인근 레버쿠젠시에 위치한 분데스리가 바이엘 레버쿠젠의 홈구장 ‘바이아레나’에서 첫 훈련을 소화한 뒤 인터뷰에서 “이 선수, 송중국, 이호가 경미한 부상이 남아 있지만 내일부터 모두 빠짐없이 훈련에 합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3일 토고전까지 남은 기간의 훈련 초점은 “예리함을 되살리는 일”이라며 “4대4, 3대3 스몰사이드 게임을 통해 선수들에게 예리한 감각을 되살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지난 가나전에서는 우리 플레이가 전혀 예리한 면이 없었다. 하지만 토고전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쯤이면 플레이가 완전히 살아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지성도 지난 주부터 훈련에 참여했기 때문에 예리함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아직 정상아 아니다”고 말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선수들이 갖고 있는 자신감과 체재지가 밖에서 보는 선수들의 자신감은 다르다. 우리 선수들은 어려운 두 경기를 치렀고 여전히 자신감을 갖고 있다. 전에도 말했지만 쉬운 팀을 상대로 3-0으로 이기고 나면 우리가 잘한 것처럼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다. 어려운 경기를 통해 충분한 수확을 거둬야. 월드컵을 앞두고 뭘 해야 할지 교훈을 얻었다”고 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가나전에서 우리 선수들의 몸 상태는 100%가 아니었다. 그 결과 가나에 선수 1대1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토고전에서도 100%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006 독일 월드컵 개막 - 주요 개관

6차 월드컵 개최국인 독일은 월드컵 개최를 위해 전국 각지를 월드컵 경기장으로 개조했다. 주요 개관장은 다음과 같다.

경기장	개관장	관객수
베를린 올림피아스타디온	베를린	74,600
프랑크푸르트 스타디온	프랑크푸르트	55,000
뮌헨 올림피아스타디온	뮌헨	70,000
도르트문트 스타디온	도르트문트	81,000
레버쿠젠 스타디온	레버쿠젠	30,000
슈탈트슈타디온	에센	25,000
에르푸르트 스타디온	에르푸르트	25,000
게젤라드르프 스타디온	게젤라드르프	25,000
비스마르트슈타디온	비스마르트슈타트	25,000
레조스 스타디온	레조스	25,000
레노프 스타디온	레노프	25,000
레노프 스타디온	레노프	25,000
레노프 스타디온	레노프	25,000

2006년 월드컵 개최국인 독일의 월드컵 경기장 개관 현황

2006년 월드컵 개최국인 독일의 월드컵 경기장 개관 현황

2006년 월드컵 개최국인 독일의 월드컵 경기장 개관 현황

박지성 멀티플레이어 전략 세웠다



3-4-3 맨 사이드 공격

4-3-3 맨 공격형 MF

포백(4-back)일 때는 공격형 미드필더, 스리백(3-back) 전형에서는 사이드 어태커'인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멀티플레이어 활용 전략을 확정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7일(이하 한국시간)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엘 레버쿠젠의 홈 구장 '바이아레나'에서 독일 입성 이후 첫 훈련을 지휘한 뒤 박지성의 포지션에 대해 이같은 복안을 드러냈다.

아드보카트 감독의 전략은 두 갈래로 맞춰져 있다. 그는 “우리 팀은 3-4-3과 4-3-3 포메이션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3-4-3일 때 박지성은 사이드 공격수, 4-3-3일 때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선다”고 말했다.

박지성 멀티플레이어 활용 예상 전략



아드보카트 감독이 토고전을 앞두고 이른바 '박지성 시프트'를 공식 확인한 셈이다.

박지성은 아드보카트호에서 주로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 스리톱(3-top)을 2선에서 지휘했지만 지난 달 26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전에서는 후반 35분부터 김두현(성남)에게 공격형 미드필더의 중책을 넘겨주고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보직을 변경했다.

박지성은 지난해 10월 아드보카트호의 데뷔전인 이란전에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작년 11월 세르비아-몬테네그로전에서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각각 선발 출전한 적이 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전지 훈련 관판 자체 연습경기에서 박지성을 측면에 세워 멀티 활용도를 점검했다.

따라서 아드보카트 감독의 이같은 전략은 박지성을 일단 선발 라인업으로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세웠다가 경기가 풀리지 않거나 급격한 반전이 필요할 때 경기 도중 시프트를 통해 스리톱의 화력을 강화하는 임기응변 전술로 사용될 전망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프랑스 공격수 시세 부상 '출전 불가'

7일(현지시간) 열린 중국과의 평가전에서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 공격수 지브릴 시세(리버풀·25)가 오른쪽 다리를 크게 부상, 월드컵 본선출전이 무산됨에 따라 프랑스 대표팀의 응징력이 크게 약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프랑스 대표팀 수비수 윌리 사블(29·바이에른 뮌헨)은 중국전이 끝난 뒤 “시세가 합류하면서 대표팀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결집력이 생겼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시세의 부상은) 대표팀에

게 큰 불행”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슬픈 일이지만 하지만 23명 중 한 명이 다친 것에 불과하며 대표팀 선수 모두가 시간이 좀 지나면 (이러한 불운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블은 아울러 “시세는 이번 부상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조만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며 중도하차한 동료를 위로했다. 레몽 도메네크 프랑스 대표팀 감독은 9일 이후 시세의 대체 선수를 선발할 계획이다.



8일 중국과 평가전에서 부상 당한 지브릴 시세가 들것에 실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한국, 월드컵 득점선수 5명 '최다'

프랑스·잉글랜드 4명

브라질·독일 3명

독일월드컵축구 공식 홈페이지

한국이 32개 본선 진출국 가운데 월드컵 축구 득점선수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2006 독일월드컵축구 공식 홈페이지(http://fifaworldcup.com)에 따르면 월드컵에서 골을 넣은 적이 있는 한국선수는 안정환(30·위스부르크), 설기현(28·올버렘프턴), 이을용(31·트라브존스포르), 송중국(28·수원 삼성),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5명으로 다른 어떤 출전국보다 많다.

이는 한국팀이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준결승까지 선전했던 증거라는 게 국제축구연맹(FIFA)의 설명이다.

당시 준결승까지 올라가면서 한국 선수 가운데 최소 7명이 득점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이 8골을 넣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숫자는 놀랍다고 FIFA는 평가했다.

프랑스, 잉글랜드의 경우 4명이 득점했다.

1998년 챔피언 프랑스는 티에리 앙리(29·아스날), 다비드 트레제게(29·유벤투스), 지네딘 지단(34·레알 마드리드), 릴리앙 튀랑(34·유벤투스)이, 잉글랜드는 마이클 오언(27·뉴캐슬), 데이비드 베컴(31·레알 마드리드), 슈켈렘(32·아스날), 리오 퍼디난드(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이 골을 넣었던 이들이다. 브라질은 지난주 이베르송(30·유벤투스)이 무릎을 다치지만 없었다면 골 경험에 있는 선수가 4명이었을 텐데 이제 호나우지뉴(26·바르셀로나), 호나우두(30·레알 마드리드), 호베르투 카를루스(33·레알 마드리드) 등 3인방이 남았다.

개최국인 독일도 미로슬라프 클로제(28·베르더 브레멘), 미하엘 발라크(30·바이에른 뮌헨), 올리버 너빌(31) 등 3명의 월드컵 골 경험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

전통적인 강팀인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스페인은 월드컵에서 득점했던 선수를 단 한명씩 거느리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